



김영록 전남지사 장성군민과의 대화.

### “황룡강 꽃강 ‘국가정원’ 되게 돕겠다”

김영록 전남지사, 장성군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장성군민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각계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록 도지사와 장성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6일 전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는 유두석 군수와 장성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황룡강을 꽃강으로 재창출해 장성만의

브랜드를 만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국가정원이 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군의 숙원사업인 국립 심혈관센터 조기 설립과 도민체전 유치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정보고와 장성군 현안사업 및 재정 건의가 끝난 후에는 김 지사와 장성군민 간의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군민대표로 나선 주민들은 전남도민체전 유치를 비롯해 다문화 복지회관 건립, 효도권 사업 확대 추진, 축령산 개발 지원, 로컬푸드 확대공급을 위한 상무대 군납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 1천만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 전남도, 1만107건 자료 공개

알권리 충족위해 전국최초 시행  
올 시·도 발주금액 2.6조 규모

전라남도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공개했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신규 및 장기공사 포함)는 총 1만107건, 2조6003억여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도 발주 물량은 615건 4033억여 원(16%)이고, 시군은 9492건 2조 1969억여 원이다.

사업별로 공사는 7801건, 2조3044억

원이고 용역은 2306건, 2958억 원이다. 특히 신규 건설물량은 7503건, 1조7849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료는 건설업체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발주 시기, 공사명, 공종, 발주 금액, 발주 부서,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누구나 자료를 보면 한눈에 어떤 사업을 언제, 누구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하고 전라남도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설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청사를 찾는 유관기관과 업체 관계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주 소재 A업체는 “건설공사 정보 부족으로 입찰 참여 기회를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라남도의 자료 제공으로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며 “철저한 사업 발주 준비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전남 건설공사 발주 정보 제공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시공업체가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경기도, 공공기관 불법채용 35건 적발

경기도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

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경기장 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저탄소’ 우수 아파트 32곳에 인센티브

광주시, 28일까지 참여아파트 공모  
대상 2곳 1500만원 등 총 2.3억 투입

광주광역시시는 공동주택 간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2019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공모한다.

올해로 10년째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우수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과 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아파트 세대별로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우수아파트 선정은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분야별 감축 실적에 대해 연말에 종합 평가를 통해 32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총 2억3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2곳 각 1500만원, 최우수 4곳 각 1000만원, 우수 10곳 각 800만원, 장려 16곳 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총 65곳이 참여해 온실가스 2055t을 감축해 소나무 묘목

7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에 참여한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기기(RFID)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평균 18%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광주시는 아파트 비율이 78.3%에 달해 아파트 주민들이 앞장서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 안성시, 국민체육진흥기금 42억 확보

안성시가 국민체육진흥기금 42억 원을 확보, 지역민의 체육 여가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는 올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공모, 총 42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사업’ 58억원 가운데 30억원, ‘전용정규장 돛구장 보강공사’ 25억원 가운데 8억원, ‘국제정규장 돛구장 내화페인트 도장공사’ 16억원 가운데 4억원 등

으로 총 3건이다. 안성시는 공모 신청서 제출 후, 경기도의회 지역구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국비 확보의 절실함에 대해 호소하는 등 지역 사회의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드러나, 안성시 공무원의 노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를 편성해 착오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이현 기자 hlee7777@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출범식을 가졌다.

##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출범

생활불편·제도개선 등 군에 건의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완도군은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민과 행정이 발맞춰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 상생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지난 4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각종 생활불편, 제도 개선·건의 사항이 있을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군에 건의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에 각 분과별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행정·교육, 문화·관광, 보

건·복지, 지역개발·환경, 해양수산·농림 등 5개 분과로 구분하여 문제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정호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이 뜻을 한 데 모아 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갈등이 되었던 다수·고충 민원, 사회적 갈등 등 지역사회와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와 함께 특별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며 “위원 여러분들이 군민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농지銀 사업비 64억 확보

“상반기 농지은행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농가경영안정과 농업발전에 노력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2019년도 농지은행사업비 64억 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함평지사는 2030세대와 청년창업농 등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16억원, 과수규모확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1억원, 농가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희생지원사업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2억원, 영농은퇴자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 6억원, 매입비축사업 16억원, 농지임대수탁사업 80ha 등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으로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는다.

경영희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환매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안전영농과 지속영농이 가능하여 수해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6 | 해질 / 18:31

3월 7일 (목) 음력 : 2월 1일

수도권 날씨 2~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0/13, 가평 -1/13, 파주 0/12, 서울 2/12, 양평 1/13, 인천 3/10, 수원 2/11, 용인 2/11, 평택 0/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